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263

JCCT 2019-5-33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사이미지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of Maj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e image for Nursing students

김혜숙*, 박경**, 강희***

Hye-Suk Kim*, Gyung Park**, Hee Ka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재학생의 전공만족도 및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사이미지를 파악하고, 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M시 소재 M 대학 간호학과 학생 2, 3, 4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하였다. 변수 중 하나인 비판적 사고성향은 7개의 하위영역인 신중성, 지적열정 및 호기심,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1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3.52점, 간호사이미지는 3.85점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사이미지는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효율적인 비판적 사고의 향상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개선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전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사이미지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e image of nursing students. Subjects were 280 associates nursing students (2nd, 3rd, 4th grade) in M university. SPSS 21.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score for satisfaction of major was 3.8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oring 3.52, nurse image scoring 3.85. Satisfaction of major was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e image of nursing students. Therefore, increase to satisfaction of major in nursing student,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improve the nurse image by improving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e image,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of Major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현장은 소비자의 의료에 대한 요구

가 질적으로 높아지면서 대상자의 요구 수준 또한 상승하고 있고[1], 이에 따라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간호사는 대

*정회원,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제1저자)

**정회원,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참여저자)

***정회원,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교신저자)

접수일: 2019년 2월 24일, 수정완료일: 2019년 3월 27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23일

Received: February 24, 2019 / Revised: March 27, 2019

Accepted: April 23, 2019

*Corresponding Author: kdkd3344@naver.com

Dept. of Nursing, Chosun Univ, Korea

상자의 상황에 대해 빠른 이해와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2]. 또한 자기주도적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전문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필요성이 반영되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간호사 핵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권장하고 있다[3].

전공만족이란 자아와 일의 성취를 실현하기 위한 직업세계를 잘 이해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을 때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4].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대학생들이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올바른 신념, 태도를 형성하여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이는 간호직이라는 직업에 대한 혼란 및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방해할 수 있다[5]. 또한 학생들이 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임하는 태도가 전공만족도에 따라 다르며, 전문직 간호사로서 간호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6], 간호직과 관련된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7]. 따라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를 향상시켜 졸업 후 간호사로서 적응과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능력은 간호교육 평가 시 교육성과의 측정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간호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을 통해 성취해야 할 기본자질이다[3]. 특히 근거중심의 임상적 추론과 판단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간호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탐색, 객관화, 창의적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8],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의사소통능력의 향상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능동적 조절,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간호사의 역할 수행을 위해 간호학생이 갖춰야 할 개념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지는 경험이나 정보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학생이 생각하는 간호사이미지 역시 학교의 교육과 실습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간호사의 이미지는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며, 간호사로서 정체성 확립을 지지해주는 사회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9]. 간호학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면 간호에 대한 일반대중이 갖는 이미지 변화도 유도 가능하고, 학생들은 보다 자부심을 갖고 간호학 및 실습에 임할 수 있으며, 임상 또는 지역사회 등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6]. 또한, 간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간호사의 긍지, 소명감, 업무수행 및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1]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간호의 미래를 주도할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성향과 관련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12],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상관관계가 있었다[13]. 이렇듯 기존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대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각각 시행되었으나, 세 변수 간의 관련성을 함께 파악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간호학과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의 정도와 세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교육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행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사이미지를 파악하고, 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M시 소재 4년제 M대학 간호학과 2, 3, 4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effect size= .25, 유의수준=.05, power=.95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252명으로 중도탈락률을 고려하여 285부를 배부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한 280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전공만족도

Ha[14]가 작성한 34개 문항의 학과만족 도구 중 Lee[15]가 전공만족 관련 문항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며, 총 18문항으로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5]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0.90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80 였다

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16]이 개발한 27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7개의 하위영역인 신중성(4문항), 지적열정/호기심(5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항), 지적공정성(4문항), 건전한 회의성(4문항), 객관성(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부정적인 2개의 문항은 역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3) 간호사이미지

Song[17]이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도구를 바탕으로 Kim[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Kim[18]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93이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8년 10월 10일~ 19일까지 본 연구는 M시 소재 4년제 M대학 간호학과 2, 3, 4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설문 작성 전에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사이미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사이미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éffe's test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사이미지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85.4% 이었고, 2학년이 31.1%, 3학년 31.8%, 4학년이 37.1% 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48.9%이었고, 성격은 81.4%가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간호직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85.4%, 간호학 지원 동기는 취업이 잘돼서가 46.8%, 입원경험이 있는 학생이 54.3% 이었으며, 가족 중 간호사가 있는 학생이 31.1% 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및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1점(± 0.55),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52점(± 0.43)점, 간호사이미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85점(± 0.49)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비판적 사

고성향 및 간호사이미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년($F=6.159, p=.002$), 성격($t=2.392, p=.007$), 간호직에 대한 생각($t=6.930, p<.001$), 지원동기($F=6.36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전공만족도에서는 '2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적성에 맞아서'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권유'나 '학교 성적에 맞춰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성별($t=-3.28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는 성격($t=3.733, p=.002$), 간호직에 대한 생각($t=4.99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사이미지 간의 상관관계

전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사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r=.293, p<.001$), 간호사이미지($r=.35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만족도와 간호사이미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16, p<.001$)가 있었다 [Table 4].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사이미지의 정도와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전공만족도 정도는 3.81로 Kim과 Oh[12]의 연구에서의 3.76이나 No와 Park[19]의 연구에서의 3.57, Moon과 Lee[20]의 연구에서의 3.61과 비슷하여 대체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좋은 편이었다. 이는 Kwon과 Yeun[21]의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직으로 사회적 인식이 되어있고, 졸업 후 진로문제에 있어 취업 등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점을 고려해 직업적 선택을 이미 하고 입학하였기 때문에 타 전공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성격에 따라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주관적 판단이기는 하나, 긍정적 성격에 따라 학습 태도나 교우관계 등에서 학습에 대한

성고가 달라질 수 있고, Kim[22]의 연구에서처럼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긍정적 사고함양을 위한 부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원동기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적성에 맞아서'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권유', '성적에 맞춰서'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신의 적성보다는 타인의 권유나 성적이라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본인의 의지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학교생활을 통해 전공 지식과 교우관계를 통해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정규 수업이나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2학년이 3학년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Park와 Oh[4]의 선행연구에서도 3학년과 4학년이 임상 실습 후 전공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는 간호현장에 적용되는 부족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실습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 육체적·정신적 피로감과 무력감 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학에 대한 이론 지식만 습득하다가 실제적인 현장에서 대상자를 마주했을 때 실제와 이론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더욱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습 전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교육시간을 가지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의 모습에 대해 전문직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3.52로 Kwon과 Yeun[21]의 연구에서의 2.96보다는 높은 편이었고, Lee와 No[22]의 연구에서의 3.47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24], 학생들이 간호현장에서 대상자와 마주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간호문제에 대해 비판적 탐색과 객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이다. 간호대학생을 상대로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지식의 습득과 상황에 대한 판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규 수업이나 학교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더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 이미지는 3.85점으로, Seong 등[25]의 연구와

Choi[13]의 연구에서 각각 3.85점과 의 3.80점으로 측정된 점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차후에 간호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할 때 올바른 간호 전문직을 가지고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교과과정과 비 교과과정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이 인식하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12,26]를 지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함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교수학습은 전공만족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이미지에 따른 전공만족도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oi[13]의 연구와 Hong[26]의 연구와 일치한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사이미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지만,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도 향상 될 수 있으므로 두 변수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사이미지를 파악하고 세 변수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M시 소재 4년제 M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도와 간호사이미지, 비판적 사고성향 간에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갖는 간호사 이미지 개선하고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지도 방법이나 적극적인 프로그램 중재 등의 활동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사 이미지 간에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비판적 사고의 향상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으로 국한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차후에는 조사대상을 더 넓은 지역 단위로 확대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Female	239	85.4
	Men	41	14.6
Grade	sophomore	87	31.1
	Junior	89	31.8
	Senior	104	37.1
Religion	Yes	137	48.9
	No	143	51.1
Personality	Optimistic	228	81.4
	Pessimistic	52	18.6
Thinking for nursing professionalism	Optimistic	239	85.4
	Pessimistic	41	14.6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guarantee	131	46.8
	Aptitude	56	20
	High school record	13	4.6
	Recommendation of parent or others	67	23.9
	service to others	13	4.6
hospitalization	Yes	152	54.3
	No	128	45.7
Nurse among family	Yes	87	31.1
	No	193	68.9

Table 2. Level of Satisfaction of Maj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e Image of the Subjects
 표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 간호사 이미지

(N=280)

Variables	Mean±SD	Min	Max
Satisfaction of Major	3.81±0.55	1.00	5.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2±0.43	2.30	4.67
Nurse Image	3.85±0.49	2.33	4.95

Table 4. Correlation among Satisfaction of Maj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e Image
 표 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및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상관관계

(N=280)

Variables	Satisfaction of Major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p)	Nurse Image r(p)
Satisfaction of Major	1	.293(<.001)	.516(<.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	.351(<.001)
Nurse image			1

Table 3. Differences in Satisfaction of Maj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e Image of the Subject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및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

(N=2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atisfaction of Maj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e Image		
		M±SD	t or F (Scheffe)	p	M±SD	t or F (Scheffe)	p	M±SD	t or F (Scheffe)	p
Sex	Female Men	3.79±0.54 3.91±0.55	-1.355	.171	3.49±0.42 3.72±0.44	-3.287	.001	3.85±0.50 3.87±0.45	-0.258	.797
Grade	sophomore ^a Junior ^b Senior ^c	3.94±0.48 3.66±0.60 3.82±0.52	6.159 (a>b)	.002	2.43±0.28 2.37±0.29 2.34±0.29	2.146	.119	3.92±0.49 3.80±0.44 3.83±0.52	1.585	.207
Religion	Yes No	3.82±0.51 3.79±0.59	0.437	.662	3.56±0.41 3.49±0.44	1.419	.157	3.88±0.49 3.84±0.48	0.434	.664
Personality	Optimistic Pessimistic	3.84±0.51 3.64±0.63	2.392	.007	3.54±0.43 3.44±0.41	1.423	.676	3.91±0.44 3.63±0.59	3.733	.002
Thinking for nursing professionalism	Optimistic Pessimistic	3.90±0.51 3.31±0.03	6.990	<.001	3.53±0.42 3.47±0.49	0.758	.449	3.91±0.46 3.52±0.52	4.993	<.001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d guarantee Aptitude ^b High school record ^f Recommendation of parent or others ^d service to others	3.74±0.51 4.11±0.47 3.62±0.95 3.70±0.53 3.94±0.36	6.364 (b>c,d)	<.001	3.47±0.42 3.64±0.47 3.55±0.49 3.48±0.37 3.66±0.41	1.982	.097	3.84±0.48 3.96±0.45 3.84±0.45 3.78±0.55 3.93±0.41	1.095	.359
hospitalization	Yes No	3.76±0.58 3.85±0.51	-1.371	.172	3.55±0.46 3.48±0.37	1.456	.146	3.86±0.49 3.84±0.52	0.357	.722
Nurse among family	Yes No	3.82±0.50 3.80±0.57	0.343	.732	3.57±0.39 3.49±0.44	1.370	.172	3.92±0.49 3.81±0.48	1.711	.088

References

- [1] H.W. Park, "Improving quality of healthcar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55, no. 10, pp. 969-977, 2012.
- [2] D. Weis and M. J. Schank,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 32, no. 2, pp. 201-204, 2000.
- [3] H.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 [4] H.J. Park and J.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17-426, 2014.
- [5] D. Barron, E. West, and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 12, no. 1_suppl, pp. 46-51, 2007.
- [6] D.J. Oh, C.J. Choi, B.E. Gwon, and Y.H. Park,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64-72, 2005.
- [7] J. L. Holland, D. C. Gottfredson &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39(6), pp. 191-200, 1980.
- [8] S.Y. Pak, "Relationship Between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ulti 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4, No. 12, pp. 345-355, 2016.
- [9] J. Y. Lee, Y. M. Lee, S, Y. Pak, M. J. Lee and Y .H. Ju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pp 606-616, 2013.
- [10] M.H. Su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of Public Nursing*, 20(1), pp. 84-96, 2008.
- [11] S.A. Ji, H.J. Moon, S.S. Han, M.S. Kim and S.B. Gwon, "Nursing Management I," Somoonsa, Seoul, 2000.
- [12] Y.S. Kim and E.J. Oh,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 103-111, 2016.
- [13] H.J. Choi,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Image of Nurse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0, no. 4, pp. 225-237, 2016.
- [14] H.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2000.
- [15] D.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16]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 [17] I.J. S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i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s, other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2, no. 2, pp. 51-62, 1993.
- [18] H.J. Kim, "A Study on the Image of the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Jeonju, 2000.
- [19] J.Y. No, S.J. Park and D.I. Ba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and Nurse's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 vol. 18, no. 2, pp. 88-94, 2012.
- [20] I.O. Moon and K.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83-91, 2010.
- [21] Y.M. Kwon and E.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2007.
- [22] E.H. Kim, "A Study on the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in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4, no. 4, pp. 720-729, 2016.
- [23] O.S. Lee and Y.G. No,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Problem Solving Skill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pp. 349-358, 2017.
- [24] J.A. Kim, E.H. Seo and C.J. Kim,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the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disaster recogn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6, no. 1, pp. 23-31, 2018.
- [25] J.A. Seong, E.Y. Yeom and Y.S. Do,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 798-809, 2014.
- [26] E.Y. Hong, "Convergence Study of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Satisfaction of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10, pp. 85-93, 2017.